

중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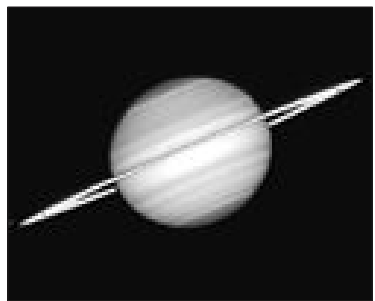
매생이로 과자·기능성 식품 만든다

장흥군이 지역의 대표적 무궁해 식품인 매생이를 이용한 과자류 생산 등 매생이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장흥군에 따르면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적 청정 수산물인 매생이를 이용한 가공공장을 건립키로 하는 등 고부가가치 사업전략을 마련했다. 장흥군은 2007년부터 매생이에 대한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화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업화 조사를 마쳤다. 기초 조사결과 매생이 소비가 중·장년층의 계절 별미에 머물고 있어 이를 청소년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1차, 2차, 3차 가공제품 생산이 필요한

장흥, 내년까지 민자 등 150억 투입 가공공장 건립 등 사업화 전략 마련

것으로 분석됐다. 1차 가공으로는 원료용 분말 생매생이를 대체한 동결건조, 2차 가공제품은 청소년층을 겨냥한 과자류 제조·상품화, 3차 사업은 면역 증강 등 기능성제품 개발과 산업화 등이다. 여기에 필요한 매생이는 연간 1천여 t 이상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생이 전량에 달한다. 인근 해역에서 나는

장흥산 매생이는 개펄이 잘 형성된 해역에서 생산돼 미네랄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으로 다른 지역 매생이와 차별화돼 가격도 2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다. '공장 건립이 가지 화되며 친환경 참살이 으뜸상품으로 지역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 기대된다'며 '차별화된 고품질 매생이 생산을 위해 유통 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매생이 양식은 28건 269ha에 달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장흥서 '토성축제'

정남진 천문과 내달 5일까지 장흥군 정남진 천문과학관은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토성축제'를 개최한다. 태양계 행성 중 2번째로 크고 테(고리)가 있는 토성은 육안 관측시 1등급 밝기의 노란 별처럼 보이며 현재 사자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관측적인 토성 관측과 함께 천체 투영실에서 볼 철 별자리를 익히고 천체망원경을 통해 달 분화구, 구상성단 등을 관측할 수 있다. 천문과학관 운영시간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이다. 문의(061-860-0651~2).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전통 가무악 향기에 취해 보세요"

25~26일 장흥 문예회관 4개부 5종목 경연 펼쳐져

'장흥 전통 가무악 전국제전'이 25~26일 장흥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제전은 4개부(명인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5종목(고법, 관소리, 무용, 기악, 가야금 병창)에 걸쳐 진행된다. 대회 첫날인 25일에는 무용·고법·관소리·가야금 병창·기악 종목 예선이 펼쳐지며 26일에는 본선 경연 및 시상식이 열린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자 개막공연을 비롯해 인건문화제 및 명인명창 단체공연 등 다채로운 특별행사가 마련된다.



장흥 가무악 제전은 소리(歌), 무용(舞), 기악(樂)의 전 분야를 아우른 종합 국악제전으로 3회 대회부터 종합대상에 대통령상이 수여되고 있다. 또한 장흥이 낳은 가야금의 명인 최옥삼(옥산류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 특별상을 제정·시상하면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화순에 목재연료 '펠릿' 생산공장 준공

연간 1만2천t 생산 5천가구 난방 해결

화순군에 목재연료인 '펠릿' 생산공장이 들어섰다. 화순군은 22일 이양면 이양농공단지에서 박준영 지사와 전완준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재 펠릿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 펠릿공장은 1만2천539㎡ 부지에 건축면적 2천584㎡의 공장 시설을 60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해 4개월 만에 완공, 연간 1만2천t의 목재 펠릿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농·산촌 5천여 가구의 난방을 해결할 수 있는 양이며 화순군 관내 시설하우스 농가 등에 우선 보급된다.



펠릿은 최대 길이 3.8cm, 굵기 6~8mm 정도의 담배필터와 비슷한 게 생긴 목재 연료로 화순군의 숲가꾸기 과정에서 나온 소나무 등을 분쇄, 고압축처리 공정을 거쳐 만든다. 펠릿연료 2kg(800원)을 난방연료로 사용할 경우 경유 1L(1천300원)와 같은 열효율을 발생, 38%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농가 연료비 절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들의 투자가 적극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영암관광 사진전'

내달 20일까지 광주공항 2층

영암군이 지역 관광자원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암군은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광주공항 2층 로비에서 '영암관광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에는 영암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축제 모습, 문화유적지 등 총 60여 점이 전시된다. 영암군은 이번 관광사진전을 통해 영암의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암에는 월출산과 기간랜드를 비롯해 왕인축제, 국화축제 등 다채로운 사계절 볼거리가 있다"며 "전시회가 끝나면 군 청사내 복도에 영구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암=박재진기자 pjs@

나주시 '지능형 전력망' 유치전 가세

국토부에 시범사업 제안서 제출

나주시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시범단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나주시는 22일 "혁신도시 이전지관인 한전, 한전KDN 등과 함께 지능형 전력망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녹색전력 IT를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현장평가는 23일로 예정돼 있으며 인천 송도와 서울 마포 등 6개 지자체와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시범단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11월까지 관련 로드맵을 수립하며 2011년 6월까지 시범

단지 조성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한편 등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범단지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한국전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혁신도시 내에 지능형 전력망 연구센터, 녹색전력IT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 지능형 전력망의 허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능형 전력망이란 생산된 전력을 송배전 망으로 보내 판매하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더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전력수급 시스템으로 이른바 '똑똑한 전기'로 불린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Large advertisement for '김영' (Kim Young) featuring '7명 김영출신' (7 graduates of Kim Young) and '대학면접은 역시 김영' (University interviews are definitely Kim Young).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광주분원 김영면접학원' and a website 'www.kimyoung.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OTI (주)국민법률경제대' (KOTI National Law & Economics) featuring '광주, 전남지역 경매' (Auction in Gwangju, Jeonnam region). It lists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an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강영희' (Kang Young-hee).